

## 폭력남편에 대한 한국에서의 개입모델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이 은 주\*

우리나라에서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이 도입된 초기인 현 시점에서 그 성공적 정착은 매우 중요하며, 어떻게 개입해야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폭력남편 개입모델 개발에 전체적인 토대와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정신분석모델, 인지행동모델, 여성주의모델이 있는데, 어느 모델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치료적 모델보다는 교육적 모델이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여성주의 모델 사용시 우리나라 문화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이란 다차원적 문제에 대해서는 생태학적 이론에 기반을 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문화적 모델인 여성주의 모델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통합의 방안으로는 집단개입에서 교육적 모델을 주로 활용하고 치료적 모델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각 모델의 시간적 배열과 집단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틀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은 다음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

\*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1) 부부폭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란 점<sup>2)</sup>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라고 할 때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프로그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매맞는 아내를 위한 쉼터이고, 두번째는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이다(Gondolf & Fisher, 1991: 286).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쉼터 등의 민간차원의 보호 및 상담서비스가 생겨 매맞는 아내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김인숙 외, 1997). 그러나 폭력을 휘두른 남편에 대한 개입이나 상담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남편에 대한 개입의 법적 근거도 없었다. 그러다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 및 사법기관이 개입하여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주거공간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광범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sup>3)</sup>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맞는 아내뿐만 아니라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 및 상담 분야에서도 임상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이 확대될

- 1) 가정폭력에는 부부폭력, 아동폭력, 노인폭력 등의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부부폭력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의 실태에 대한 1997년의 전국적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가정의 지난 1년간의 부부폭력의 발생률은 31.4%로서, 미국보다 2배, 홍콩보다 3배, 재미한국인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발생률이 다른 사회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 그리고 사회문제로서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가정폭력은 사실상 실제 발생건수보다 적게 보고되기 때문에 실제 발생률은 보다 높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김재엽, 1998: 16~17).
- 2) 조사에 의하면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그리고 상호폭력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Lystad, Rice와 Kaplan은 여러 문헌을 통하여, 남성의 체격, 신체적 힘, 공격성 성향이 여성보다 크므로 같은 행동이라도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 폭력이 여성이 남성에게 가한 폭력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과 상처를 준다는 점,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폭력은 많은 경우 상대방의 폭력에 대한 대응이나 자기방어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996: 142).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김재엽의 1997년의 조사에 의하면,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호폭력률을 통제하게 되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5배 이상이나 높게 나타난다. 또한 심각한 폭력률이 있어서도 상호폭력을 제외했을 때,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율(6.3%)이 반대의 경우(1.2%)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1998: 20).
- 3)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여성운동가들이 아내구타의 문제를 제기하여 매맞는 아내들에 대한 피난처 제공으로 원조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1970년대 말부터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Breines and Gordon, 1983: 491; Eisikovits and Edleson, 1989: 384~385; Caesar & Hamberger, 1989: xxx).<sup>4)</sup> 폭력을 당한 여성만을 원조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폭력남편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첫째, 구타당한 아내들의 대부분이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아내가 현재의 부부관계를 끝낸다 하더라도 폭력남성은 다른 여성을 다시 구타하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Edleson, 1984: 237).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폭력남편 집단, 부부상담, 지역사회 개입이다(Edelson & Tolman, 1994). 첫째, 폭력남편 집단이란 주로 법정명령을 받은 폭력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화된 집단개입을 말하며, 남편에 대한 개별상담이 병행되기도 한다. 둘째, 부부상담은 가족체계이론에 근거를 둔 부부 혹은 부부합동 집단양식을 말하며, 주로 가족상담기관에서 행해진다. 셋째, 지역사회 개입이란 남편의 폭력행동에 대한 지역사회체계(경찰 및 사법체계)의 반응 및 처벌, 그리고 아내와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첫번째의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선 부부상담양식은 피해자인 아내에게도 폭력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는 전제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sup>5)</sup> 남편과 아내가 일단 따로따로 상담프로그램에 참여

4)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가정폭력을 범죄로 간주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법정명령 폭력남편 프로그램이 크게 증가하여(Gondolf, 1993: 231), 전국적으로 대략 2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Dobash & Dobash, 1992).

5) 부부합동상담이 기반을 두는 가족체계론은 그 순환적 인과론 및 성에 대한 중립적 입장, 즉 폭력은 남편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상호작용에 의한 공동의 책임이라고 개념화함으로써 폭력의 희생자인 아내에게도 책임을 지운다는 점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Bograd, 1984: 561; Adams, 1988: 186; Ganley, 1989: 220). 또한 실제로 부부상담 세션 후 회가 난 남편에 의해 아내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Adams, 1988: 163). 물론 많은 임상가들이 부부상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Geller, 1982; Weitzman & Dreen, 1982; Taylor, 1984: 11; Weidman, 1986: 212; Douglas, 1991; Lipchik,

하고 폭력이 일정기간 중단된 연후에야 부부상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Bograd, 1984; Rosenbaum & Maiuro, 1989: 173; Sakai, 1991: 536; Jennings & Jennings, 1991; Pressman & Sheps, 1994: 477). 따라서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이 부부상담보다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개입을 볼 때,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폭넓은 지원체계 안에서 폭력남편에 대한 임상적 개입은 그 일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위하여, 첫번째 유형인 폭력남편에 대한 임상적 개입에 한하여 다루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관한 연구가 이미 상당수 있으나, 대부분 쉼터에 온 때맞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이승열, 1995; 한미자, 1995; 김지영, 1995; 신은주, 1995; 김희자, 1996; 김경호, 1997; 김인숙 외, 1997; 박미은, 1998). 이에 비해 폭력남편을 대상으로 한 임상적 개입방법에 관한 연구는 수적으로 아직 적으며, 그 접근방법도 각각 다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재엽(1995)의 연구는 재미 한인가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를 고려한 개입방법을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구타남편에 대한 부분을 아내, 부부, 지역사회 개입과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부분만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허남순(1995)은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방법을 사용한 부부치료사례, 권진숙(1996)은 인지행동치료와 의사소통치료에 기반을 둔 부부합동집단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임상적 개입의 개척적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폭력남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방법은 아니다. 한편 김인숙(1998)의 여성주의 방법을 사용한 구타남편에 대한 사례연구와 임종렬(1998)의 대상관계이론을 사용한 부부치료 사례연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가치기반에서 서로 정반대 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김인숙(1998)의 연구는 폭력남편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을 우리나라에서 시도한 의미있는 연구이지만, 사례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종렬(1998)의 연구는 사례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부부치료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측의 심내적 변화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관점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두 연구 모두 어느 한 모델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합

1991), 부부상담 시작 전에 이들이 부부상담에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사정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이렇게 폭력남편에 대한 임상적 개입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모델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모델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해야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Muller는 영국상황에서 미국의 프로그램을 아무런 의문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유는 미국에서 여러 다양한 접근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각각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996: 227~228).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 폭력남편에 대한 법정명령 프로그램 시행의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프로그램 시행에 초석이 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구미에서 실행되는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모델들은 크게 정신분석모델, 인지행동모델, 여성주의모델로 볼 수 있다. 구미에서는 임상실천가들이 실시하는 폭력남편에 대한 각 개입모델의 접근방법과 기저의 가치관, 그 효과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어떠한 사회문제도 그러하지만, 가정폭력문제 역시 개입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문제의 원인이 다르게 설명되고, 따라서 개입방법이 달라지며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의 원인이나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즉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인가 아니면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했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보는가, 그리고 이 혼으로 가지 않고 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는가 아니면 개인 특히 여성의 자유가 더 중요한가 등의 논점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임상실무자의 접근방법은 달라지게 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은 여성이 피학대적 성격 및 가정에서의 기능 실패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것이며, 그 해결방법은 여성의 기능수행을 강화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가장 반대되는 입장은 가정폭력의 원인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통제가 가정폭력의 근본원인이며, 따라서 구타당하는 여성이 남편을 떠나고 가부장적 사회문화가 변혁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 극단사이에 가정폭력을 보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입장은 폭력남편에 대한 여러 개입모델에도 각각 반영되고 있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양극단 중 그 어느 쪽도 문제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즉 가정폭력에 대한 보수적 입장은 남성의 시각에서 힘 있는 자의 입장만을 대변한 균형 잃은 주장이므로 도전받아야 한다고 본다. 한편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 역시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배격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여성을 위하는 ‘현실적’ 방법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견해로는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접근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틀에 관한 논의이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시행할 때, 그 토대가 되는 기저의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는 프로그램이 방향을 잃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외국에서 시행되는 어떠한 하나의 개입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후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 혹은 기법중심의 구체적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연구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연구는, 우리나라 상황과 문화에서 어떠한 개입모델이 보다 적절한가, 그리고 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연구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폭력남편 개입모델을 시행할 때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사업 개입방법에서는 주로 구미에서 발달된 이론 및 방법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해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같이 개인, 가족, 사회문화 및 가치의 문제가 복잡하게 뒤얽히며, 따라서 감정적 논쟁이 되는 주제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개입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사료된다. 둘째,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에서 어느 한 모델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폭력과 같이 다요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리, 사회, 문화적 차원을 다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사회사업에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사회문화적 관점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그 개입모델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와 틀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문헌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폭력남편에 대한 기존의 대표적인 개입모델, 즉 정신분석모델, 인지행동모델, 여성주의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는 이 모델들을 다시 치료적 모델과 교육적 모델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논쟁을 살펴본 후, 한국문화에 적합한 모델에 관하여 토의할 것이

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토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모델들의 통합 방식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용어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하며,<sup>6)</sup> 아내를 때리는 남편을 지칭할 때에는 폭력남편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다. 또한 가정폭력은 주로 신체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sup>7)</sup>으로 한다.

## 2.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모델

가정폭력을 보는 이론은 일반적으로 정신의학적, 사회심리적, 사회문화적 세 수준으로 분류된다(Wallace, 1996: 7~14).<sup>8)</sup> 이러한 이론들에 기반을 두고 폭력남편을 위한 개입프로그램들이 발달되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입모델은 정신분석 모델, 인지행동모델, 여성주의모델로 볼 수 있다.<sup>9)</sup> 각 모델들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

- 
- 6) 여성학적 입장에서는 기존의 '가정폭력'과 같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이 남성에게 학대당하는 면이 모호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용어보다는 주체와 객체를 분명히 하는 아내학대(*wife abuse, wife batterin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남편을 가해자/학대자(*perpetrator, abuser*), 아내를 희생자/피해자(*victim*)로 지칭할 것을 주장한다(Davis, 1991).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을 희생자의 틀로 보는 이러한 용어는 여성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이의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Geffner et al., 1989: 111; Muller, 1996: 10).
- 7) 가정폭력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어 여러 문헌마다 그 정의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배우자의 물건 손상 등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 모든 형태의 폭력이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많은 경우 이러한 여러 형태의 폭력은 혼합되어 나타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폭력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도 주로 신체적 폭력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체적 폭력은 다른 종류의 폭력을 포함하며, 배우자의 신변안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그 행위가 가장 뚜렷하면서 증거가 확실하게 남으므로 명확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도 신체적 폭력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 8)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의 분류방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위의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 외에도 Gondolff(1993)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 분류한다. Wallace(1996)와 Gondolff(1993)는 사회문화적 관점, 혹은 거시적 관점 안에 여성주의이론과 폭력문화이론을 함께 포함시키지만,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여성주의 이론을 별도의 관점으로 분류한다. 그 외 교환이론, 공격성이론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 9) 폭력남편에 대한 임상적 접근의 종류를 분류할 때 부부합동 치료모델을 포함시키기도 하지만(Caesar & hamberger, 1989; Adams, 1988),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부부합동 치료모델은 논의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들에서 이미 설명되고 있으므로(Adams, 1988; 김인숙, 1988), 이 연구에서는 각 모델의 가정폭력에 대한 원인설명, 개입목표 및 기법, 강점과 약점에 대해 간략히 다루겠다.

### 1) 정신분석 모델

가정폭력에 대한 전통적 접근으로서, 가해자의 병리적 성격, 즉 손상된 자아기능과 이를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과장된 남성다움을 폭력행동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며, 이는 부모로부터의 거부, 혹은 폭력가정에서의 성장과 같은 아동기 발달상의 상흔에 기인한다고 본다. 또한 많은 피해여성의 성격 역시 병리적으로 규정되고, 이것이 히스테리로 표현될 때 남편의 폭력을 야기한다고 지적된다(Weizman & Dreen, 1982: 260).<sup>10)</sup>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이들에 대한 통찰치료로 연결된다. 이 모델의 목표는 폭력남편이 어떻게 과거 경험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자기 내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과거의 상흔을 극복하여 현재의 관계에 보다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의 강점은 성격을 개조함으로써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모델의 약점은 다음과 같이 비판되고 있다. 첫째, 원인설명의 면에서 아내구타자가 다 정신병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아내구타 현상이 사회에 널리 만연된 것을 볼 때, 이를 특정개인의 정신병리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된다(Bograd, 1984; 1988). 둘째, 원인설명의 면에서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나 유년기 경험에서 원인을 찾음으로써 남성의 폭력행동을 변명해 주는 경향을 갖는 반면, 구타당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이들의 성격특성이 학대를 유발한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논조를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구타당하는 여성이 나타내는 정서적 문제나 성격특성은 학대의 원인이 아니라 반복된 학대의 결과(Fleming, 1979: 80; Walker, 1984; Goldolf and Fisher, 1991: 285; Lystad, Rice & Kaplan, 1996: 156)라는 점에서 이 모델이 비판되고 있다. 셋째, 개입의 면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통찰력 개발인데, 통찰력이 개발

10) 피학대 여성의 문제를 가정폭력의 원인이라고 보는 정신의학적 설명은 1970년대 이후에 사회학적 설명의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Breines and Gordon, 1983: 508).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며, 가정폭력과 같이 시급하고 때로는 피해자의 생명까지 걸린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된다(Adams, 1988: 181).

## 2) 인지행동 모델

인지행동이론에서는 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을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강화되었다고 보며, 따라서 비폭력도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폭력은 남편에게 스트레스 감소나 불안 감소방법으로서 강화되며, 또한 남편의 비이성적 인지작용 및 사회기술 결핍이 폭력행동의 근본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에 기반을 두고 인지행동모델이 발달되었다. 이 모델의 목표는 폭력이 자기파괴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적하고 대안적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관찰을 통한 분노일지 쓰기, 타임아웃, 체계적인 이완 훈련, 인지의 재구조화, 자기주장 훈련 및 커뮤니케이션 훈련 등을 통한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둔다(Jennings & Jennings, 1991: 357~359; Edelson, 1984: 237~241).

이 모델의 강점은 경험적으로 파생된 원칙에 의거하므로 명확하고 구조적이며 평가가 쉽다는 점, 방법이 구체적이고 기법위주이므로 클라이언트가 비교적 저항이 적고 프로그램간에 방법 전이가 용이하다는 점, 폭력이 학습된 행동이라고 개념화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희망을 보다 쉽게 가질 수 있다는 점(Saunders, 1989: 89), 단기간에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으며 경제적이라는 점(Deschner, Mcneil & Moore, 1986: 59)이다. 그러나 이 모델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면, 첫째, 원인설명의 면에서 왜 자기통제가 어려운 남성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족 이외의 사람을 때리지 않고 아내만을 선별적으로 때리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남편의 폭력은 기술결여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힘의 차이,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려는 시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때려도 된다는 믿음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된다(Adams, 1988: 190~191).<sup>11)</sup> 둘째, 개입의 면에서 이 모델은 통찰모델과는 달리 폭력행동을 치

11) 임상적 관찰에 의하면, 많은 폭력남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부부관계 이외의 다른 면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며 폭력은 아내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Fleming, 1979: 301; Adams, 1989: 80). 폭력남편의 가정에서의 행동과 가정 밖에서의 행동의 모순성에 대하여, Adams는 폭력남편의 사회적 기술의 수준만큼이나 그가 상대하는 사람의 성과 지위에 따

료의 중심 초점에 두기 때문에 통찰모델보다는 비판을 덜 받는다. 그러나 남편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폭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폭력이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성차별이나 여성통제에 대한 태도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분노통제 기법은 단순히 '기법' 차원에서만 머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Muller, 1996: 230; Gondolf, 1993: 243). 셋째, 만약 남편의 폭력이 어린 시절의 미해결된 분노나 치환된 공격성 때문이라면, 인지행동적 방법은 장기간의 변화의 면에서는 정신분석적 방법보다는 덜 효과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Saunders, 1989: 89~90).

### 3) 여성주의 모델

여성주의 모델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정신분석적 모델이나 인지행동 모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가정폭력의 원인설명에서 가부장적 사회정치 문화구조 및 남녀불평등 이외의 어떤 원인도 부차적이라고 본다. 폭력은 남성이 아내를 통제하려는 목적(폭력의 기능적 효용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이며,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기제가 가정폭력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폭력은 개인의 과거력, 분노, 기술부족 등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본다. 따라서 순수하게 개인의 심리적 차원이나 가족기능면에서 개입할 때는 실패하게 된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여성주의적 개입모델이 대두되었다(Pence & Shepard, 1988: 285; Adams, 1989: 94; Bograd, 1988). 여성주의 모델에서는 교육을 통한 태도변화, 즉 남편의 신념체계('남편이 아내를 폭력을 통하여 통제해도 괜찮다')에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자기 각성과 사회적 각성을 둘 다 촉진시키는 것을 강조한다(Pence & Shepard, 1988: 285). 사용되는 주요기법은 남편이 자기의 통제유형을 깨닫도록 '통제일지'를 쓰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통제행동이 가지는 통제효과와 손상효과를 교육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폭력에 대한 태도, 기대,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들이 보통 아내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아내를 무시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자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깨닫도록 한다. 이러한 태도 변화

---

라 반응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Adams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인지행동 모델은 여성에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강화를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본다(1988: 190).

는 부인, 평형의 붕괴, 결단의 단계를 거친다. 상담자는 지시적 역할을 하며, 도전과 직면(*confrontation*)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한다(Adams & McCormick, 1982; Adams, 1988, 1989).

이 모델의 강점은 폭력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태도를 개입의 초점으로 함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약점은 첫째, 원인설명의 면에서 왜 같은 사회문화에서 자란 남성들 중 많은 수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된다(허남순, 1993: 282). 둘째, 인간의 태도는 행동처럼 명시적이지 않으므로, 많은 폭력남편들이 자신이 성차별적 태도와 통제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이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Adams, 1989: 83). 셋째, 이 모델에서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도전과 직면이 참석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프로그램에의 참여 자체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 3. 개입모델에 관한 논쟁과 우리나라 문화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가정폭력의 원인과 개입방법에 관해서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이론과 개입모델들이 있으며, 각 모델에는 나름대로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 각 모델에 대하여는 그 개입방법, 기저의 철학, 폭력의 책임, 효과 등에 관하여 어느 모델이 보다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Pence and Shepard, 1988: 283; Ganley, 1989: 197~198; Geffner et al., 1989: 103; Dobash & Dobash, 1992: 241; Wallace, 1996: 7; Muller, 1996: 223). 그러나 어떠한 이론도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단일 이론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치료모델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은 없다(Deschner, Mcneil & Moore, 1986: 59; Davis, 1984: 249; Wallace, 1996: 7).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에는 본질적으로 양면적 성질이 공존한다. 즉 폭력행동은 사회적으로 제지나 처벌을 받아야 할 행동이라는 점과 동시에 사회사업적 개입 혹은 치료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이다(Adams, 1989: 94). 이것이 개입상황에서 딜레마를 가져온다. 이는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이 심리치료냐, 아니면 교육이냐 하는 논쟁으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입장은 각 모델마다 다르다. 정신분석모델은 폭력남편의 과거의 정신 내적 상흔에 대한 통찰치료라는 점에서 치료적 모델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인지

행동 모델과 여성주의 모델은 교육적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여성주의자와 행동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남성의 폭력행동이 학습되었고 기능적이라고 보며(Eisikovits & Edleson, 1989: 393), 따라서 기술훈련을 통한 대안행동 학습, 혹은 양성평등주의적 가치관을 새로이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장에서는 폭력 남편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치료모델과 교육모델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을 프로그램 대상자, 폭력에 대한 책임인정, 개입양식의 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모델이 보다 적절한지를 토의하고자 한다.

## 1) 개입모델에 관한 논쟁

### (1) 프로그램 대상자에 관한 논쟁

모든 종류의 폭력남편이 다 개입프로그램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즉 사회적 병리자, 정신증상자,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는 이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으므로(Gondolf, 1993),<sup>12)</sup>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정확한 사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개입의 대상자는 이들을 제외한 폭력남편들이다. 이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대상자의 특징이 성격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는다. 즉 많은 폭력남편들이 진단가능한 다양한 심리적 특징(성격장애,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미해결된 학습장애 및 주의력 결핍, 기질적 성격증상, 사고장애 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공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Rosenbaum & Maurio, 1989: 178)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폭력남편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Edleson & Tolman, 1994)도 있기 때문이다. 폭력남편의 성격이나 특징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개입의 틀을 치료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교육적으로 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치료적 틀로 할 경우, 이들이 치료를 통해서 경감되는 심리적 증상을 지녔다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 반면 교육적 틀로 할 경우, 이들의 문제는 심리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학습했던 파괴적 행동과 문화적 가치의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12)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 행동패턴이 유형화되어 있거나 물질남용 및 중독 문제가 있는 남성(Lystad, Rice & Kaplan, 1996: 174), 주요 정신병적 증상이나 에피소딕 비통제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Schlesinger, Benson & Zornitzer, 1982: 166) 등은 알코올중독 치료, 약물치료, 혹은 정신과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다.

폭력남편들 중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개입모델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문제에 관하여는 완전한 대답이 가능하지 않다(Ganley, 1989: 228). 왜냐하면 폭력남편의 프로필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때로는 모순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sup>13)</sup>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일된 결론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2) 폭력에 대한 책임인정에 관한 논쟁

폭력남편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들이 자기가 폭력행동에 본의 아니게 연루된 힘없는 희생자이며 강제치료의 처벌을 억울하게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tosny, 1994: 687). 이러한 책임거부, 즉 정당화<sup>14)</sup>는 실제로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Adams, 1989: 70). 가정폭력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13) 폭력남편의 성격적 특성을 찾아내려 시도한 여러 심리학 연구들을 분석한 Gondolf는 폭력남편들이 다양한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성격에는 어떤 특정한 성격타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비교집단이나 통제집단을 활용한 폭력남편 프로필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상담을 받는 폭력남성집단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하여 성격문제나 알코올 문제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으로 비교해 볼 때 일반남성 인구에 비하여 본질적 차이가 없으며, 성격검사도구로는 아내학대를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Gondolf, 1993: 233). Gondolf와 Fisher는 폭력남편에 대한 프로필 연구의 약점은 폭력남편을 다른 종류의 범법자, 즉 강간범, 강도 등과 본질적으로 구별해 주지 못하는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1991: 284).

14) 정당화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외부적 요인들을 비난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것에 전가하는 것이다. Gondolf(1993)는 책임거부 즉 자기정당화의 방식을 크게 두 형태, 즉 학대를 부인하는 사람과 학대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Rosebaum과 Maiuro(1989: 175)의 분류와도 일치한다. 학대를 부인하는 남편은 자기는 아내와의 싸움에서 단지 자기방어나 자기주장을 했을 뿐이라고, 혹은 아내가 자기를 자극하고 화를 돋구었기 때문에 때렸으며 자기는 잘못이 없고 오히려 부부싸움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폭력사실을 최소화하고 폭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임상실천가가 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으며, 부부관계나 남편의 외적 스트레스 상황(예를 들면 직장에서의)에 초점을 맞추는 체계론적 접근을 할 수 있다. 반면 폭력을 인정하는 남편들은 자기가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고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흔히 자기의 음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불행했던 어린 시절, 정신증상, 분노 통제 능력결여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고 여기에 잘못을 돌린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에 대한 폭력은 다른 것들에 비해 부수적인 것으로 재규정됨으로써, 자칫하면 진단과 치료에서 이차적인 것이 되어 버리고, 치료자의 심내적인 역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지나치게 개별화되고 정신건강으로 편향된 심리적 접근이 되어 사회문화적 요인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폭력남편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임상가나 연구자, 사회전반적 의식들이 남편의 알코올 문제, 직장관련 스트레스, 아내의 행동을 가정폭력의 원인, 혹은 최소한 원인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입장, 특히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념화가 틀릴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화는 폭력남편 본인이나 개입자의 관심을 폭력의 근원인 폭력남편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며, 정신건강이나 체계론적 접근 등의 개인적, 심리적 방향으로 지나치게 지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의 폭력에 대한 책임성 강조에서 벗어나므로, 효과적인 개입을 제한한다고 지적된다(Fleming, 1979; Muller, 1996: 37; Goldolf, 1993).

폭력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그들의 정당화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Muller, 1996: 225; Ganley, 1989: 223; Sakai, 1991: 539). 즉 아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 지간에 폭력이라는 반사회적인 수단을 사용한 행동은 오직 남편본인만의 책임이며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실천가가 동의하고 있다(Rosenbaum & Maiuro, 1989: 172). 부부치료양식을 옹호하는 Geffner 외(1989) 및 Lipchick(1991)도 폭력행동 자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한 책임성의 기반에 있는 가치는 인간의 어떠한 행동도 그 대가로서 폭력을 받을만 하지 않으며, 남편은 아내를 훈육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Bograd, 1984: 56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제에 기반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폭력의 성공적 근절을 위해서는 남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인정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각 개입모델마다 상이하다. 즉 정신분석 접근에서는 통찰력의 개발을 통하여, 인지행동 접근에서는 분노통제를 비롯한 기술훈련을 통하여, 여성주의 접근에서는 아내통제 의도에 대한 깨달음과 가부장적 가치변화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치료적 모델인 정신분석 모델의 전제는 폭력남편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약한 자아가 치료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료자와의 지지적 관계가 필수적이며(Fleming, 1979: 300~301), 치료자는 이들을 치료에 초대하는 비위협적이고 비직면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Myers, 1983을 Adams, 1989: 65에서 재인용). 치료적 모델을 옹호하는 Murphy와 Baxter는 많은 폭력남편들이 실천가

의 잦고 강한 직면에 대하여 강한 반론, 침묵, 동의하는 척 하기, 혹은 중도탈락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행동변화의 필수적 요소인 치료적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994: 615). 또한 부부치료 양식을 옹호하는 Geffner 외 역시 치료초기부터 폭력남편에게 치료자의 가치와 견해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만약 이것이 남성과의 래포형성을 방해한다면,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1989: 126).

반면 교육적 모델, 특히 여성주의 모델에서는 치료모델에서 남편의 과거력을 주로 다루고 감정이입에 주력하는 수용적 태도는 남편의 변명 및 합리화를 은연중 허락하는 암묵적 연합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폭력남편에 대한 어떤 개입모델도 남성의 정당화를 허용한다면 폭력단절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으며, 일관되는 강력한 직면적 도전(그의 행동의 현실, 그 결과, 그리고 이 양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Muller, 1996: 227; Adams, 1989: 73). 따라서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은 기존의 심리치료와는 달라야 한다고 보므로, 임상가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보다는 강력한 교육의 측면을 강조한다(Muller, 1996: 36). 한편 역시 교육적 모델에 속하는 인지행동 모델은 기술훈련 위주이므로, 이러한 논쟁에 있어서 그다지 강한 가치입장이 표명되지는 않고 있다.

### (3) 개입양식에 관한 논쟁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모델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준에서 설계될 수 있지만(Ganley, 1989: 218), 많은 연구자들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효과적인 양식이 집단이라는 것에 개입모델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의하고 있다(Gondolf & Russel, 1991: 287; Pressman & Sheps, 1994; Sakai, 1991: 537).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실행되는 양식은 소집단양식(5~15명)인데, 집단양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집단구성원으로부터 대리학습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폭력에 대한 책임부인에 효과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Eisikovits and Edelson, 1989: 393; Beninati, 1989: 63; Edleson, 1995: 148; Kerlin & Brandell, 1997: 36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폭력남편 개입모델을 개발할 때에도 집단양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sup>15)</sup>

15) 집단양식에 관하여, Kim(1995: 76)은 동양권의 클라이언트에게 집단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집단

다음은 집단의 구조화의 정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집단의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서 교육적 집단(구조적), 자조집단(비구조적), 혼합집단의 세 종류로 분류하여 집단 종료 6개월 후의 폭력재발 및 폭력위험을 비교조사한 Edleson과 Syers의 연구(1990)에 의하면, 16) 구조화된 집단이 비구조화된 집단보다 폭력재발 및 위험률이 훨씬 더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인지행동집단(비교적 구조적/교육적)과 과정-정신역동적 집단(비교적 비구조적/치료적)의 내담자 유치율을 비교한 장희숙(1998)의 연구에 의하면, 과정-정신역동적 집단이 인지행동집단보다 더 탈락률이 낮으며, 이는 정서적 안정과 집단결속력의 강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dleson과 Syers(1990)의 연구와 장희숙(1998)의 연구는 물론 치료모델의 구분방식 자체가 다르고, 종속변수도 폭력재발률과 중도탈락률이라는 점에서 다르므로,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자는 구조화된 교육적 모델의 상대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반면, 후자는 비구조화된 치료적 모델의 상대적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구조화된 교육집단이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교육적인 모델보다 비구조화된 자조집단이 변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Jennings(1987)를 Eisikovits & Edelson, 1989: 394에서 재인용). 따라서 집단의 구조화의 정도에 대하여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론을 찾기가 어렵다고 사료된다.

## 2) 우리나라 문화와 개입모델

### (1) 우리나라 문화와 치료/교육적 모델

위에서 살펴본 대로 치료적 모델과 교육적 모델 중 어느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하여서는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따라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

---

에서 자기 문제를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과 개방적으로 토의한다는 것이 체면과 겉손을 중요시하는 동양적 가치에 맞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동양인에게는 주류문화의 백인들과 함께 하는 집단양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단일인종으로 이루어진 한국사회에도 적절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서구인들에 비해서 집단에서 자기노출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이미 집단양식이 상당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입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폭력남편개입에 집단양식을 시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 16) 이 연구에서 구조화된 집단이 사용한 교육적 모델은 인지행동 혹은(및) 여성주의적 모델이며, 자조집단은 참가자의 개인적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혼합집단은 이 양자가 혼합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이 처음 도입되는 우리나라에서 그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모델들 중 어느 한 가지를 무조건 시도하기에 앞서서, 어느 모델이 우리나라 문화에 보다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엄예선은 한국문화에 맞는 정신치료 구상<sup>17)</sup>에 7단계의 절차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1994: 268).<sup>18)</sup> 이 연구는 구체적인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앞선 시론적 연구이기 때문에, 7 단계 중 앞의 다섯 단계만을 이 연구의 주제에 적용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문화에 대한 분석(1 단계)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문화에 적합한 정신치료적 모형이 갖추어야 할 조건 탐색(2 단계)에서, 엄예선은 한국문화는 비언어적이고 비통찰적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인의 간접적인 자기표현이나 감정의 통제 성향을 고려할 때 과거 및 감정표현이나 해석에 중점을 두는 치료방식보다는 현재 및 행동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방식이 한국인에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1994: 282~284). 또한 Matsushima와 Tashima(1982)는 서구지향 클라이언트에게는 보다 해석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전통적 아시아지향 클라이언트에게는 지시적 방법이 사용됨을 보고하고 있다(Ho, 1990: 147에서 재인용). 이렇게 볼 때 타 문화권으로부터 위의 조건들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치료적 모형 선택(3 단계)에는 한국에, 우선적으로 적합한 폭력남편 개입모델은 치료적 모델보다는 교육적 모델이라고 하겠다.

또한 집단의 구조화 정도와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때, 구조화된 집단은 주로 교육적 모델에서 사용되며, 비구조화된 집단은 치료적 모델이나 자조집단에서 사용된다. 경험이 있는 치료자는 덜 구조화된(*semi-structured*) 집단에서 중요한 분야를 다루더라도 편안함을 느끼지만, 경험이 덜한 치료자는 구조화된 양식에서 보다 편안해 한다(Sakai, 1991: 537). 우리나라의 경우,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고, 이 분야의 유경험자, 특히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으로 특화훈련된 집단지도자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입이 보급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단 구조화된 모델, 즉 교육적 모델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고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

17) 이 연구는 한국문화에 적합한 정신치료모형 구상이기 때문에 강제적 개입프로그램과는 다를 수 있으나, 한국문화에 대한 고려점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18) 6단계는 대상문화에 적절한 일반적인 치료적 원칙들로 보강, 7단계는 치료 이후의 교육프로그램의 보강이다.

인이 기대하는 치료자상은 전문적 능력과 권위가 있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나 제언을 주는 형(엄예선, 1994: 282)이라는 점에서 볼 때도, 교육적 모델이 치료모델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우리나라 문화와 여성주의 모델

그 다음 단계로서, 선택된 모형의 수정(4 단계) 및 대상문화권 안팎에서 발견되는 다른 치료적 요인들로 보강(5 단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육적 모델 중 특히 여성주의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때 문화와 관련되는 점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교육적 모델 중 인지행동 모델은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여성주의 모델은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며, 여성주의에 대한 오해 및 부정적 반응이 상당히 강하고, 특히 폭력남편들은 상당히 남성지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19)</sup>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점이다.<sup>20)</sup> 따라서 이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참여를 동기화시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프로그램 도입 초창기의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Ho는 아시아계 이민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임상적 개입은 여성의 안전을 옹호하면서도 문화적 가치에 민감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문화적 요인을 고려

19) 남성지배적인 부부관계에서가 다른 유형의 부부관계보다 폭력이 더 일어난다는 Steinmetz (1977)의 연구결과(Lystad, Rice, & Kaplan, 1996: 159에서 재인용)는 우리나라 부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김재엽, 1997).

20) 미국에서 폭력남편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보고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여로 폭력이 중단된 비율은 4~26개월의 추후조사에서 53~85%로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이러한 조사연구의 방법론적 결함과 함께 중도탈락률이다(Edleson, 1995; Eisikovits & Edleson, 1989).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대부분 법정명령으로 오는 강제참여자들이며, 자발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아내가 쉽터에 머무는 동안 귀가의 조건으로 남편의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의 목적은 아내의 귀가 및 결혼생활 지속, 그리고 법정명령 이행이지 자기 행동변화가 아닌 경우가 많다(Adams, 1989). Edleson (1995)의 연구에 의하면, 프로그램 제공기관을 처음 접촉한 폭력남편의 30%, 그리고 프로그램에 일단 참여한 폭력남편의 54%만이 프로그램을 마친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폭력남편이 폭력을 중단한 비율은 1/5 정도로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Hamberger & Hastings (1986)에 의하면, 치료프로그램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폭력남편이라고 규정된 남성의 16%만이 이에 참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Caesar & Hamberger, 1989: xxxii에서 재인용).

할 때 전통문화가 남성우위행동의 합리화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996: 146).

McEvoy, Brookings와 Brown(1983)은 여성학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표방한 매맞는 아내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국의 지역사회의 일부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그 이유를 여성주의에 대한 원인불명의 불신 및 오해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21)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로그램의 지향하는 바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참여자나 사회로부터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폭력남편에 대한 임상적 개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성주의적 접근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위에서 기술한 한국문화에 맞는 개입모델 구상에 대상문화권 안팎에서 발견되는 다른 요인들로 보강하는 단계(5 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명명(*reframing*)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Williams(1994)는 폭력남편 집단에서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들의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고하며, 이들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흑인문화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흑인문화의 특징은 개인들의 협동 및 상호의존, 그리고 집합적 책임인데, 배우자학대라는 부정적 행동이 흑인으로서의 전통적 행동강령 및 관습에 어긋난다고 재명명해 줌으로써 폭력에 대한 책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흑인 폭력남편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994: 95).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우리의 전통가치에서 남녀를 어떻게 평등하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부각시키고 아내에 대한 폭력이 우리의 전통가치에 위배된다고 재명명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즉 우리 전통가치 중 유교에서는 음양원리에 기초하는 우주론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인간관계의 질서를 규정했기 때문에 남성의 지배권과 여성의 예속성이 고정화되었지만, 동시에 유교는 인본주의적 공동체주의 윤리와 자기절제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신옥희, 1997). 더욱이 불교의 공(空)이론은 가부장제 이념과는 달리 모든 인간의 가치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상을 제공하며, 원불교는 부부권리 동일, 남녀권리

21) 그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성, 나이, 인종에서 혼합적으로 직원을 모집하고, 접근방법이 다른 타기관의 직원들과도 협조적으로 일하며, 타기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도록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가르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일이 교리로서 제정되어 있다(민현주, 1994). 또한 동학 및 천도교 역시 그 당시의 사회상황에서는 혁신적으로 인간평등의 하나로서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다(김경애, 1984). 따라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의 전통적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재명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양성평등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인간존엄성의 가치이지 서구적인 가치만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전통가치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엽이 지적하다시피, 한국문화에서는 여성주의에서 중요하게 활용하는 직면기법이 무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1995: 99), 클라이언트의 체면을 가능한 한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신뢰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항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에 재명명과 같은 비도전적인 기법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부부관계보다는 부모-자녀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할 때, 아내에 대한 폭력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토의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폭력남편들의 '남성다움'에 대한 과장되고 경직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Wong, Davey와 Conroe(1976)는 전통적인 남성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 가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버려야 하며, 아내와 동등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다운 행동의 구조적 본질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김재엽, 1995: 100에서 재인용). 전통적으로 남성우위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남성다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폭력행동 변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교육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을 강화시키는 문화적 자원의 한 방법으로서 가족이나 지역사회 어른이 매맞는 아내를 돕고 폭력남편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는 방법도 있다(Ho, 1990: 146).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해 볼 때, 폭력남편의 확대가족에서의 어른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교육적 집단모형을 논하고 있는 이 연구의 초점은 벗어나며, 개별 및 가족접근에서 이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는 치료적 모델과 교육적 모델 중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교육적 모델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 그리고 교육적 모델 중 특히 여성주의 모델에 대하여 우리나라 문화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고 교육적 모델만을 사용하고 치료적 모델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적 모델은 교육적 모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후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각 치료모델을 배열하고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4.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모델 통합의 방안

##### 1) 통합의 필요성 및 이론적 틀

Muller는 가정폭력의 다요인을 과거에 뿌리를 둔 감정과 인간관계, 학습된 행동 및 이와 관련된 사고과정, 그리고 사회체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성으로 정리하고 있는데(1996: 228), 이는 결국 위에서 논의한 세 가지 개입모델의 원인 설명과도 각각 일치한다. 어느 가정폭력도 단순히 두 개인의 병리적 성격의 충돌 때문만이라거나, 기계적으로 사회문화를 반영한다고만 보는 것은 양쪽 다 적절하지 않으므로, 심리적 분석과 문화적 분석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Brienes and Gordon, 1983: 491).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러 다른 모델들을 상호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개입모델 발달에 공헌한 점을 인정하고 폭력행동의 다양한 차원을 상호보완적으로 반영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Ganley, 1989: 197~198, 208; Rosenbaum & Maiuro, 1989: 166). 모델들의 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기반이 되는 이론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Ganley(1989)는 프로그램 통합시 기법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숙고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이론적 모델에서 이런 저런 기법들만을 빌려오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명한 이론적 틀에 의거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이론적 틀로서 생태학적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생태학적 개념들에 근거하여 가정폭력을 설명하고 있는 Dutton에 의하면, 가정폭력 문제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문화의 복합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며, 이 요소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Bronfenbrenner가 생태이론에 의하여 생태학적 공간을 다양한 체계로 구분한 설명들은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즉 미시적(*micro*) 체계요인은 개인 가구내의 일을 말하며, 남편 및 아내의 개인적 특성 및 가족간의 역동을 말한다. 외적(*exo*) 체계요인은 가족이

소속한 사회체계내에서 작동하는 힘, 즉 직업세계(실직 여부, 직업만족)와 이웃과의 관계(소외 여부)를 말한다. 거시적(*macro*) 체계요인은 미시적 체계와 외적 체계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믿음과 가치, 즉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Dutton, 1985).

문제가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서 사회사업적 개입에서 무엇을 행할지가 주로 결정된다(Gitterman, 1996: 396)고 볼 때,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은 개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기반이 된다. 우선 미시적 체계요인에 대한 개입으로서는 정신의학적 모델과 인지행동 모델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이를 심리학적 모델이라고 하겠다. 외적 체계요인에 대한 개입으로서는 인지행동 모델의 다양한 사회기술 훈련을 통하여 직업세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거시적 체계요인에 대한 개입으로서는 가정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적 태도 및 개인적 믿음에 도전하는 여성주의 모델이 관련되며, 이를 사회문화적 모델이라고 하겠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개입모델이 따로따로 실행되지 않고 한 프로그램 안에서 통합되어야만 여러 수준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다차원적 문제에 대한 개입방법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신분석적 접근이나 인지행동적 접근의 심리학적 모델만을 사용할 때, 이는 단순히 개인의 치료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온상이 되는 가부장적 사회문화에 대한 관점을 빠뜨리게 되기 때문이다(Caesar & Hamburger, 1989: 241). 사회복지사업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응을 원조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여 왔으며, 따라서 사회문화적인 거시적 관점보다는 심리적 접근모델이 전통적으로 주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의 이러한 면은 가부장적 문화, 백인, 자본주의, 중산계층 위주의 가치관에 입각해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성, 인종, 경제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계층 구조 유지에 공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Willson, 1980; Muller, 1996: 231). 이러한 비판에 바탕을 두고, 보다 효과적인 사회사업실천을 위하여 여성주의와 사회사업<sup>22)</sup>을

22) NASW의 여성주의 실천 프로젝트에 의하면, 여성주의적 사회사업실천은 자유주의적 실천과 급진주의적 실천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두 집단 공통적으로 여성이 특히 가족과 직장에서 기회와 선택을 체계적으로 부인당해 왔다고 본다. 자유주의적 개혁주의자는 이를 성차별적 사회화의 산물로 보고 실천은 재사회화와 재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현재의 사회질서, 그러나 수정된 사회질서 속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1970년대 이래로 사회사업 주요 문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Bergh & Cooper, 1987; Loewenstein, 1983; Valentich, 1996). 사실 여성주의의 사회문화적 관점은 사회사업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사업의 발달 역사를 통하여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주의는 개인의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해결책에 대한 개념화를 사회문화적 맥락내에서 통합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하는 사회사업의 전통적 초점과 일치하며(Davis & Hagen, 1992: 15; Collins, 1986: 214), 생태학적 관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Eisikovits & Edleson, 1989: 393).<sup>23)</sup> 특히 가정폭력과 같이 성차별적 가치가 얽혀 있는 문제에서는 심리학적 모델만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여성주의적 모델도 함께 사용하여야만 개입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모델이 반드시 심리학적 모델과 함께 통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 절에서는 통합의 구체적 방법을 구조화된 집단양식의 면에서 살펴보겠다.

## 2) 폭력남편에 대한 모델의 통합방법

### (1) 여성주의 모델과 심리학적 모델의 통합방법

우선 여성주의 모델과 인지행동 모델의 통합을 살펴볼 때, 여성주의는 가정폭력을 이해하는 데 넓은 윤곽을 제공하는 한편, 사회학습 이론에 의한 분석은 구체적인 개입에 필요한 틀을 제공해 주므로 상호보완적이며, 단순히 두 개의 접근을 열거하는 것이 상으로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Ganley, 1989: 196~197, 208). 인지행동 모델

---

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급진주의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질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실천은 자원의 통제, 선택기회 창조, 정치적 행동, 그리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을 강조한다(Valentich, 1996). 이 연구에서 고찰하고 통합을 모색하고자 하는 여성주의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이다. 왜냐하면 개인, 가족, 소집단을 변화대상으로 하는 임상사회복지사업의 특성상,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은 사회구조변화를 위한 행동보다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개인, 가족, 소집단의 권리와 자유에 보다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 23) 여성주의는 어떠한 기법이라기보다는 여성주의적 이해에 우선을 두는 일련의 믿음과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접근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Muller, 1996: 233). 실제로 여성주의는 정신분석적 접근을 비롯한 어떠한 심리학적 접근과도 통합될 수 있으며(Lowenstein, 1983: 532), 심리치료자들 중에도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Muller, 1996: 233).

은 폭력행동에 대한 개입에 유용한 통찰을 주었고, 오늘날 가장 널리 행해지며(Edleson, 1984; Adams, 1989; Eisikovits and Edleson, 1989), 가장 생존가능성이 많은 모델(Deschner, Mcneil and Moore, 1986: 59)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폭력남편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 접근방법은 다양하지만 분노통제에 기반을 둔 인지행동적 훈련 및 교육모델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정신역동적 요소나 여성주의적 요소가 프로그램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Edleson, 1995: 148; Eisikovits and Edelson, 1989: 393). 한편 대표적인 여성주의적 모델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EMERGE 및 Duluth 모델(DAIP)의 가장 큰 특징은 반(反)성차별적 교육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여성주의적 접근을 주로 하되 인지행동적 작업을 혼합시키고 있다(Adams & McCormick, 1982; Pence and shepard, 1988). 폭력종식의 효과에 대하여, 이 두 요소를 분리시켜서 어느 것이 보다 더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Tolman & Edelson: 264).

그 다음으로 여성주의 모델과 정신분석적 모델의 통합에 대해서 살펴볼 때, Rosenbaum & Maiuro에 의하면 이 양자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개념화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정신건강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문제인 가정폭력을 개인의 정신장애로 오도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본다(1989: 177). 여성학적 관점의 Adams도 정신분석적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할 뿐, 정신분석적 접근이 부분적으로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1989: 66).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분야에서 정신분석적 접근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그 동안 비판받았던 피해자의 정신병리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정신분석적 접근이 아니라, 가해자의 성장기의 상처와 이에 대한 치유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그리고 비구조적인 집단운영과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Murphy & Boxter, 1997). 연구자의 견해로는 정신분석 모델도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생태학적 체계내에서 개인의 심내적 부분에만 치중한다면, 전체적인 관점, 특히 사회문화적 관점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분석 모델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른 모델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통합에 있어서 시간적 배열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 (2) 통합의 시간적 배열

폭력남편에 대한 집단의 통합적 프로그램의 시간적 배열을 제시한 연구에는 Pressman과 Sheps(1994), Rosenbaum과 Maiuro(1989), Sakai(1991) 등이 있다. 우선 Rosenbaum과 Maiuro(1989)는 7주의 프로그램의 흐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째 부분은 태도변화(폭력에 대한 책임성 인정, 폭력이 가정성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다루고, 두번째 부분에서는 행동변화(커뮤니케이션, 인지의 재구조화, 타임아웃, 이완, 자극통제 기술 등)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배열은 이들이 여성주의 모델에서 주장하는 대로, 태도변화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 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sup>24)</sup> 한편 Sakai(1991)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개별사정을 거친 후, ① 분노관리와 타임아웃을 강조하는 단계, ② 힘과 통제, 지배 등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의 단계, ③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자기주장 훈련과 같은 인지행동접근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인지행동적 개입을 ①과 ③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여성주의의 앞과 뒤에 배치하고 있다. Sakai는 이에 대하여, ①을 여성주의적 개입보다 앞부분에 배치한 이유는 ①의 단계가 남성의 행동변화 및 폭력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서는 ②의 단계(태도)가 ③의 단계(기법)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Pressman과 Sheps(1994)는 치료를 5단계로 나누어서, ① 집단시작전 사정과 교육단계, ② 규범을 세우고 행동변화를 증진시키는 단계(분노통제와 관련된 인지행동적 접근), ③ 힘과 통제(여성주의적 접근), ④ 치유치료(정신분석적 접근), ⑤ 집단종결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주의적 접근으로 시작하여 여성주의적 접근을 거친 다음 정신분석적 접근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흐름으로 짜여져 있는데, 세 모델을 다 망라하는 장점이 있으나, 12~24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프로그램들의 통합방법을 분석해 보겠다. 첫째, 정신분석 모델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집단발달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는데(Pressman & Sheps, 1994), 이는 통찰력 개발은 폭력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한 연후에 다루어야 한다는 여성주

24) 여성주의 모델의 Adam에 의하면, 개입의 초기에 남편의 폭력에 대한 책임성 이외의 이슈(통찰력 개발이나 기술훈련)를 중요하게 다룬다면 이는 남편의 책임회피를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폭력문제를 도전해야 한다고 보며, 그 외의 이슈들은 그 연후의 과제라고 본다(1988: 179).

의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 세 가지 모델을 모두 한 프로그램에서 통합하면 변화의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따라서 중도탈락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단기간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계획한 경우에는 정신분석 모델이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집단 진행중이나 집단 종료후 개별면담에서(Muller, 1996: 232) 보완적으로 활용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인지행동적 접근은 분노통제에 관련된 부분(타임아웃 및 자극통제기법)과 인간관계 기술(커뮤니케이션 및 자기주장 훈련)에 관련된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후자는 공통적으로 여성주의적 접근의 뒤에 배치된다. 전자는 폭력재발방지에서 후자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서, 프로그램에 따라 가장 시초에 행해지기도 하고, 혹은 여성주의적 접근이 먼저 행해진 직후에 오기도 한다.

집단 프로그램 지속기간은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10~36세션 혹은 6~32주가 소요된다(Eisikovits and Edelson, 1989: 393; Edleson, 1995: 148). 여성주의 모델의 경우 Emerge는 24주(Adams & McCormick, 1982: 182), DAIP는 약 26주(Pence & Shepard, 1988: 288)로 비교적 길며, 인지행동 모델은 이보다는 기간이 짧다. Edleson과 Syers의 연구(1990)에서는 폭력 및 폭력위협에 대한 재발을 감소라는 목표에서, 12주 집단과 32주 집단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비슷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모델을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탈락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탈락방지를 위한 적정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집단프로그램 구성시 구조적인 교육적 모델이 위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구성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가장 마지막에 인간관계 기술에 관한 부분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분노통제에 관한 부분, 그리고 가부장적 태도변화에 관한 부분은 첫번째와 두번째에 오는데 이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된다. 프로그램의 지속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각 부분이 차지하는 기간과 비율도 달라질 것이다.

### (3) 집단지도자

폭력남편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사가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강제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남성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변화

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사례에 경험이 많은 임상가들은 치료자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지하며(Caesar & Hamberger, 1989: 238), 치료자의 수동적이고 비지시적인 역할이나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가정폭력 사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Ganley, 1989: 221). 그러나 만약 폭력남편이 초기단계부터 사회복지사의 강력한 도전에 심한 저항을 느껴 상담을 중단한다면, 이는 오히려 아내의 복지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이들의 폭력에 대한 변명과 정당화를 다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폭력남편에 대해 지지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그들의 변명과 정당화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Erikson은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그는 강한 직면대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중요한 치료수단은 폭력남편과 치료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정당화나 변명에도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992: 266). 이러한 능력은 상당히 고도의 능력과 실무경험,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필요로 한다.

집단지도체의 성에 있어서, 여성지도자의 경우에는 남성 클라이언트가 치료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내 편만을 든다고 편향된 선입관을 가지고 저항할 가능성이 많다. 반면 남성지도자의 경우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매맞는 아내의 경험에 대해서 여성보다는 덜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공동팀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집단지도자의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상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 능력에 더하여 이 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교육과 훈련, 확립된 가치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폭력 문제는 다른 사례들에 비하여 당사자들간의 격렬한 감정이 포함되며 법적·의료적 문제가 연루되기 때문에, 특화된 분야로서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갖춘 가정폭력에 특화된 임상사회복지사의 양성이 시급하다.

## 5. 맺는말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정폭력문제 해결에서 상당히 큰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하면서 폭력남편을 개입프로그램에 강제로 참가시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낙관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떠한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분석 모델, 인지행동 모델, 여성주의 모델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적 모델보다는 교육적 모델이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제안하였고, 여성주의 모델 사용시 우리나라 문화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태학이론의 틀에 의한 통합에서, 교육적 모델을 먼저 활용하고 치료적 모델은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통합의 시간적 배열과 집단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폭력남편 개입모델의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데 있지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구성과 기법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틀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은 다음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문화에 적절한 구조화된 접근을 위한 집단지도 지침이 시급히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폭력남편 프로그램의 시행에서 중요한 것은, 이는 가정폭력 근절이라는 큰 목표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강제 참여 및 중도탈락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함께 실행되어야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피해자 보호의 틀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 사법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서비스기관, 매맞는 아내를 위한 쉼터와의 협동작업이 필수적이며, 여기에서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계에서 가정폭력문제, 특히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에 관하여 더 많은 관심과 활발한 토의가 요청된다.

■ 참고문헌 ■

- 권진숙. 1996. "배우자 학대 부부집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애. 1984. "동학, 천도교의 남녀평등사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호. 1997. "매맞는 아내에 대한 여성중심적 사회사업 개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천. 1992. "한국의 성차별적 가족문제에 대한 페미니스트 가족치료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숙·김혜선·신은주. 1997.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학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 나남.
- 김인숙. 1998. "구타남편에 대한 사례연구: 여성주의 사회사업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2호. pp. 59~86.
- 김재엽. 1995. "가정폭력의 실태와 임상개입에 관한 연구: 재미한인가정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제2권. pp. 86~107.
- \_\_\_\_\_. 1997. "부부권력구조와 갈등, 그리고 폭력." 《한국가족복지학》 제1호. pp. 41~64.
- \_\_\_\_\_. 1998. "폭력실태와 사회복지개입의 필요성: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의 현황과 개입방안의 모색》.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4회 학술자료집. pp. 10~37.
- 김지영. 1995. "학대받는 아내들을 위한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자. 1996. "학대받는 아내들의 쉼터 프로그램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현주. 1994. "원불교의 남녀평등상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은. 1998. "매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옥희. 1997. "한국문화의 현대적 변용과 여성의 윤리적 과제." 《한국여성학》 제13권 2호. pp. 160~195.
- 신은주. 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엄예선. 1994. 《한국가족치료개발론》. 서울: 홍익재.
- 이승열. 1995.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대책 및 쉼터운영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의 경우."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종렬. 1998. "매맞는 아내의 부부체계 개선을 위한 대상중심 가족치료." 《한국사회복지학》

- 제 34 호. pp. 121~160.
- 장희숙. 1998. "아내구타자의 집단상담 탈락요인 : 인지 - 행동과 과정 - 정신역동적 집단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의 현황과 개입방안의 모색》.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4회 학술자료집. pp. 47~69.
- 한미자. 1995. "학대받는 아내를 위한 쉼터운영의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남순. 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 《비교사회복지》 제2집. pp. 295~320.
- \_\_\_\_\_. 1995. "아내구타: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 모델의 적용."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3호. pp. 41~64.
- Adams, D. & A. McCormick. 1982. "Men Unlearning Violence." in M. Roy, ed. *The Abusive Partner*. New York: Nostrand & Reinhold.
- \_\_\_\_\_. 1988. "Treatment Models of Men Who Batter." in K. Yllo & M. Bograd, eds. *Feminist Perspective on Wife Abuse*.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_\_\_\_\_. 1989. "Stages of Anti-Sexist Awareness and Change for Men Who Batter." in L. Dickstein & C. Nadelson, eds. *Family Violence*. Washington D.C.: APP.
- Beninati, J. 1989. "Pilot Project for Male Batterers." *Social Work with Groups*. Vol. 12(2).
- Bergh, N. & L. Cooper. 1987. "Feminist Social Work."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8th ed.). pp. 611~618.
- Bograd, M. 1984. "Family Systems Approaches to Wife Battering: A Feminist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4). pp. 558~568.
- \_\_\_\_\_. 1988. "An Introduction." in K. Yllo & M. Bograd, eds.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Sage Publication.
- Breines, W. and L. Gordon. 1983. "New Scholarship on Family Violence." *Signs*. Spring. pp. 490~531.
- Caesar, L & K. Hamberger. 1989. "Introduction." in L. Caesar & K. Hamberger, eds. *Treating Men Who Batter*.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Collins, B. 1986. "Defining Feminist Social Work." *Social Work*. May-June. pp. 214~219.
- Davis, L. 1991. "Violence and Families." *Social Work*. Vol. 36 No. 5. pp. 371~373.
- \_\_\_\_ & J. Hagen. 1992. "The Problem of Wife Abuse: The Interrelationship of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Vol. 37 No. 1. pp. 15~20.
- Deschner, J., J. Mcneil, & M. Moore. 1986. "News and Views: A Treatment Model for Batterers." *Social Work*. January. pp. 55~60.

- Dobash, R. & R. Dobash. 1992. *Women, Violence, and Social Change*, London: Routledge.
- Dotton, D. 1985. "An Ecologically Nested Theory of Male Violence Toward Intim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8. pp. 404~413.
- Douglas, H. 1991. "Assessing Violent Couple." *Families in Society*. November.
- Edleson, J. 1984. "Working with Men Who Batter." *Social Work*. May-June. pp. 237~242.
- \_\_\_\_\_. & M. Syers. 1990. "Relative Effectiveness of Group Treatment for Men Who Batter."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6(2). pp. 10~17.
- \_\_\_\_\_. & R. Tolman. 1994. "Group Intervention Strategies for Men Who Batter." *Directions in Clinical Psychology*. Vol. 4 Lesson 9. Summer.
- \_\_\_\_\_. 1995. "Do Batterer's Program Work?" *Domestic Abuse Project Research Update*. No. 7. Summer. Minneapolis, Minnesota.
- Eisikovits and J. Edelson. 1989. "Intervening with Men Who Batter: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ervice Review*. September. pp. 384~414.
- Erikson, B. 1992. "Feminist Fundamentalism: Reactions to Avis, Kaufman, and Bograd."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8(3). pp. 263~267.
- Fleming, J. 1979. *Stopping Wife Abuse*. New York: Anchor Books.
- Ganley. 1989. "Integrating Feminist and Social Learning Analysis of Aggression." in L. Caesar and K. Hamberger. ed. *Treating Men Who Batter*.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Geffner, R., C. Mantooth, D. Frank, & L. Rao. 1989. "A Psychoeducational, Conjoint Therapy Approach to Reducing Family Violence." in L. Caesar and K. Hamberger. ed. *Treating Men Who Batter*.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Geller, J. 1982. "Conjoint Therapy: Staff Training and Treatment of the abuser and the abused." in M. Roy. ed. *Abusive Partner*. New York: Nostrand and Reinhold.
- Gitterman, A. 1996. "Life Model Theory and Social Work Treatment." in Turner. ed. *Social Work Treatment* (4th ed.). New York: the Free Press.
- Gondolf, E. & Fisher. 1991. "Wife Battering," in Ammerman and Hèrsen. ed. *Case Studies in Family Violence*. New York: Plenum Press.
- \_\_\_\_\_. 1993. "Male Batterers." in R. Hampton, T. Gullotta, G. Adams, E. Potter, & R. Weissberg. eds.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Ho, C. 1990. "An Analysis of Domestic Violence in Asian American Communities." in L. Brown & M. Root. eds. *Diversity and Complexity in Feminist Therapy*. New York:

- Howorth Press.
- Jennings, J. & J. Jennings. 1991. "Multiple Approaches to the Treatment of Violent Coupl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4). pp. 351~362.
- Kerlin & Brandell. 1997. "Family Violence and Clinical Practice." in Brandell. ed. *Theory and Practice in Clinical Social Work*. New York: Free Press.
- Kim, Yoon-Ock. 1995. "Cultural Pluralism and Asian-Americans: Culturally sensitive social work practice."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38. pp. 69~78.
- Lipchick. 1991. "Spouse Abuse: Challenging the Party Line." *Networker*. May/June.
- Lloyd, S. 1995. "Social Work and Domestic Violence." in P. Kingston & B. Penhale. eds. *Family Violence and the Caring Profession*.
- Lowenstein, S. 1983. "A Feminist Perspective." in A. Rosenblatt & D. Waldfogel. eds. *Handbook of Clinical Social Work*. Jossey-Bass Publishers.
- Lystad, M., M. Rice & S. Kaplan. 1996. "Domestic Violence." in S. Kaplan. ed. *Family Violence: a Clinical and Legal Guide*. Washington D. C. : APA.
- McEvoy, A., J. Brookings, & C. Brown. 1983. "Responses to Battered Women: Problems and Strategies." *Social Casework*. pp. 92~96.
- Muller, A. 1996. *Rethinking Domestic Violence: the Social Work and Probation Response*. London: Routledge.
- Murphy, C. & V. Baxter. 1997. "Motivating Batterers to Change in the Treatment Contex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pp. 607~618.
- Neidig, P. & P. Friedman. 1984. *Spouse Abuse: a Treatment Program for Couples*. Research Press.
- Pence, E. & M. Shepard. 1988. "Integrating Feminist Theory and Practice." in K. Yllo & M. Bograd. eds.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Sage Publication.
- Pressman, B. & A. Sheps. 1994. "Treating Wife Abuse: an Integrated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44(4). pp. 477~498.
- Rosenbaum, A. & R. Maiuro. 1989. "Eclectic Approaches in Working With Men Who Batter." in L. Caesar and K. Hamberger. eds. *Treating Men Who Batter*. N.Y. : Springer.
- Sakai, C. 1991. "Group Intervention Strategies with Domestic Abusers." *Families in Society*. November. pp. 536~542.
- Saunders, D. 1989. "Cognitive and Behavioral Interventions with Men Who Batter." in L. Caesar & K. Hamberger. eds. *Treating Men Who Batter*. N.Y. : Springer.
- Schlesinger, L., M. Benson & M. Zornitzer. 1982. "Classification of Violent Behavior



- for Purposes of Treatment Planning." in M. Roy. ed. *The Abusive Partner*. Van Nostrand Reinhold.
- Stosny, S. 1994. "'Shadows of the Heart': a Dramatic Video for the Treatment Resistance of Spouse Abusers." *Social Work*. 39(6). pp.686~694.
- Taylor. 1984. "Structured Conjoint Therapy for Spouse Abuse Cases." *Social Casework*. January. pp.11~18.
- Tolman, R. & J. Edelson. "Intervention for Men Who Batter: A Review of Research." in Stith & Straus. ed. *Understanding Partner Violence*.
- Valentich, M. 1996. "Feminism and Social Wor." in F. Turner. ed. *Social Work Treatment*(4th ed.). Free Press.
- Walker, L. 1984. *The Battered Women Syndrome*. New York: Springer.
- Wallace, H. 1996. *Family Violence-legal, medical, and social perspectives*. Allyn and Bacon.
- Weidman. 1986. "Family Therapy with Violent Couples." *Social Casework*. April. pp.211~218.
- Weitzman, J. & K. Dreen. 1982. "Wife Beating: a View of Marital Dyad." *Social Casework*. May. pp.259~265.
- Williams, O. 1994. "Group Work with African American Men Who Batt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5(1). pp.91~103.
- Willson, E. 1980. "Feminism & Social Work." in M. Brake & R. Bailey(eds.). *Radical Social Work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vention Model for Korean Men Who Batter

Lee, Eun Joo (Kkottongnae Hyundo University of Social Welfare)

As the Law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was enacted in Korea, it has become necessary to work on how to intervene effectively in Korean men who bat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ramework of the intervention model which is relevant to Korean wife-batterers. In the States, the psychoanalytic model, cognitive-behavioral model, and feminist model are most widely used with men who batter. As yet, the consensus on which model is most effective has not been reached. In this study, each model is reviewed briefly. And then it is suggested that in the light of Korean culture the educational model is more relevant than therapeutic model. Several points are also suggested, which need to be considered when feminist model is used in Korean culture. It is also insisted that the integrated model based on ecological theory is necessary to intervene effectively in such a multi-dimensional problem as domestic violence. For the group intervention, it is suggested to use educational model primarily and to use therapeutic model complementarily. Based on the framework suggested in this study, to develop the specific structure of the program, to implement it, and to test its effectiveness will be the tasks of the future researches.